

지역 소식통

완주군 둔산영어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선정

완주군은 둔산영어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17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강연과 탐방을 연계해 운영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완주군 대표 인문학 프로그램이다.

6월부터 운영되는 완주군 길 위의 인문학은 '나무랄 데 없는 나무와 떠나는 인문학 여행'을 테마로 문학, 역사,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등을 아우르는 통섭형 강좌 12회기로 기획됐다.

초빙된 강사진으로는 '숲에게 길을 묻다'의 김용규 작가, 나무 칼럼니스트 고규홍 인화대 교수, 나무인문학자 강관권 계명대 교수이다.

또한 '날아라 백백아' 등 생태동화로 유명한 권오준 작가, 삼례문화예술촌 김상립목공소 김상립 소장 등이다.

군은 첫 번째 프로그램과 관련해 김용규 작가와 함께 6월 14일 '숲에게 좋은 삶의 길을 묻다' 강연을 개최했다.

6월 21일에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스승, 숲' 강연, '저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나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주제의 불명산 화암사 숲 생태 탐방을 연달아 진행할 계획이다.

길 위의 인문학 사업과 관련된 문의 및 참가 접수는 둔산영어도서관(063-290-2242)으로 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가정폭력예방 교육 실시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시청 지하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전 직원 1300여명을 대상으로 오전(1차)과 오후(2차) 2회 진행되었으며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인 열경련 강사를 초빙하여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사건의 사례를 제시하고 그 문제점과 사회적인 부작용, 개인적인 피해 등을 세밀하게 제시하여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성의식 및 성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양성평등과 성인지 관점이 부족한 직원들에 대해서 성평등과 성인지 관점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도 교육에 앞서 직접 제작한 폭력예방 전단지과 홍보물품을 배포하는 등 직원 대상 폭력예방 캠페인까지 병행하여 우리사회 민연한 폭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예방을 위한 실천분위기를 확산시켰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대주코레스, 완주에 285억 투자

군-전북도와 투자협약... 전기차 배터리 하우스 전용 생산라인 구축키로

자동차 부품, 알루미늄 등을 전문 생산하는 대주코레스(주)(대표 이상수)가 완주군에 올해 말까지 285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하우스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완주군과 전북도는 지난 19일 완주군청에서 대주코레스(주)와 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대주코레스는 봉동읍 둔산리 소재 공장 내 유휴부지(5000㎡)에 285억원을 투자해 순수 전기차(EV: electric vehicle)용 배터리 하우스 전용 생산라인을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최소 60명 이상의 신규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설공장의 제품 전량은 영국

에 본사를 둔 글로벌 자동차메이커인 재규어(JAGUAR)로 납품, 2018년 1월 출시될 신차에 장착될 계획이다.

앞으로 완주군과 전북도는 대주코레스의 원활한 투자 및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행정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대주코레스(주)는 알루미늄 빌렛 소재를 압출·가공·피막·조립공정을 통해 현대기아자동차를 포함한 국내 완성차업체들에게 쉐루프와 범퍼, 스윙도어 등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 공급하는 1차 협력업체다.

종전에 안산, 광주 등에 소재한 공장들을 지난 2013년에 완주군에 통합 이전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과 품질 안정화 등 구조고도화를 진행하는 등 국내 알루미늄사업 전문회사로 지속

성장 중에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신규 투자를 결정하고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대주코레스(주)에게 군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투자를 계기로 더욱 더 성장하여 전북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완주군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상수 대표는 "대주코레스의 심플마크가 상징하는 인화·단결을 기본으로 안정적인 바탕 위에 미래지향적 세계 최고의 기업 추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완주군과 전북도 등과의 협력을 통해 회사 성장에 물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이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충남 태안에서 제11기 완주농업인대학의 성공적 학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다.

완주농업인대학, 한마음 워크숍 개최

'스토리텔링을 통한 농산물 판매전략' 특강 등 진행

완주군이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충남 태안에서 제11기 완주농업인대학의 성공적 학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다.

재학생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농산물 판매전략'이라는 주제로 김재준 강사의 특강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지마케팅 전략'이라는 농촌진흥청 위태석 박사의 역량강화 교육이 이뤄졌다.

더불어 가공과 체험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력을 강화한 당지의 울미백석

영농조합을 탐방하는 시간으로 운영됐다.

특히 팀워크 강화 및 과정별 화합과 소통을 위한 시간을 통해 바쁜 일상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역 자원의 활용 사례를 통한 벤치마킹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리더로서 성장할 농업인 대학생들의 인식전환 계기가 됐다.

또한 농업인대학운영과 완주농업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회를 개최해 꾸준히 소통하는 완주농업 구현을 위해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았다.

토론회에서는 농업인대학 및 완주농업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교과과정 편성, 적극적 홍보, 교육환경개선, 이론보다는 현장교육 강화, 인적자원의 지속적 육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졌다.

한편 완주 농업인대학은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11년째 운영, 현재까지 86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올해는 시설딸기와 30명, 소셜마케팅과 20명, 발효식품과 30명, 시설딸기 30명을 선발해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능동적인 학습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다문화가정 친정집 후원 나서

성덕면 사회보장협의체, 생활용품 보내기 추진

김제시 성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광정근)는 지난 18일 성덕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파악하여 그 중 생활이 어려운 5년 이상 고국에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정 3세대를 선정하여 다문화가정 친정집 "생활용품 보내기" 사업을 후원금 200만원을 소요하여 추진하였다.

선정된 3가정은 태국과 필리핀이 고향인 결혼이주여성으로 남편의 질병과 어린 자녀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향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가정이 대부분이었다.

이 사업은 4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에서 결정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국의 정"을 담아 결혼이주여성의 친정

부모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물품을 보내드리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주여성들에게 친정집에서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여 라면, 의약품, 장화 등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입하였다.

또한 손자·손녀의 예쁜 모습이 담긴 가족사진을 촬영하고 결혼이주여성이 친정부모에게 정성스럽게 직접 쓴 손 편지를 선물과 함께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은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기쁘다. 며, 고국에 계시는 부모님도 항상 딸이 잘 살고 있는지 걱정하고 계실텐데 가족사진과 생활용품, 손 편지를 받아보고 안심하고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농기센터, 행복농업 이동상담장터 열어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는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와 협력해 참다래 재배 및 시범농가 20명을 대상으로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한 '행복농업 이동상담장터'를 열었다.

김제시는 기후 온난화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2012년부터 아열대작목육성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기 시작하여 2015년 시설하우스 참다래 실증재배에서 도내 처음으로 성공하여 첫 수확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16~'17년 2년간 13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13개소 3ha에 대해 참다래 등 아열대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번 "행복농업 이동상담장터"는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농업인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참다래를 재배하면서 겪고 있는 줄기

유인 및 병해충 방제, 수분 관리 특히 시설 내에서 참다래를 고품질화시키기 위한 온도 및 양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사전에 농업인에게 수요 조사를 실시한 내용중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결하는 맞춤형 컨설팅이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우리지역 우수과일 생산을 위해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여 참다래 작목을 확대 재배하고자 하는 열기가 고조된 상태에서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이번상담장터를 개설하게 되었다.

행복농업이동상담 장터를 통해 고품질 참다래 생산기술을 보급하여 김제 지역의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농업인의 작목선택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순창 종합사무기기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

